

<편집위원 칼럼>

요즈음 일간신문에는 드물지 않게 사회면이나 독자투고란등에 돼지가격의 폭락으로 인하여 도산일보직전의 양돈업계의 실태가 자주 실리곤 한다.

국내시세보다 더 비싼가격으로 돼지고기를 수입해다가 국내가격보다 더 싼값으로 국내소비자에게 공급을 했고 정부의 양돈장려로 인하여 돼지수가 급격히 증가하여 공급과잉현상이 심각하고, 밀었던 대일수출도 적자수출에다가 그나마 일본의 수요기가 지나고 있는 8월에야 수출이 시작되어 비육돈 90kg짜리 한마리가 4만원에서 5만원으로 폭락되어도 중간상인들은 가져가지않고 체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마치 금년전반기의 육계업계와 똑같은 양상이다. 이웃사촌인 양돈업계가 위낙 심각하니까 양계업자들의 계란가격폭락으로 인한 울상을 오히려 미소같이 보이는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몇년동안 못박힌듯 오르지 않는 계란가격이나, 상상을 초월한 육계가격의 진폭은 많은 양계업자들에게 전업이나 계업을 한두번씩 생각해보지 않을수 없게하고 설상가상으로 사료가격의 폭등설은 축산업자들에게 서있을 의욕마저 빼앗아 간다고 아우성이니 업계에 종사하는 일원으로서 그 고통에 대하여 어떤 슬픔까지 느끼게 해주곤 한다. 유난히 더웠고 비도 많이왔던 금년도 여름은 양축업자에게 더욱더 고통스러운 계절이 되었던것 같다.

역설적인 이야기지만 금년 5월부터 재벌사료회사의 출현은 사료판매에 오만했던 사료공장의 허리를 90° 이상으로 굽히게 만들었고 보다더 유리한 조건으로 풍부한 사료가 대량 공급되고 있어 어느때보다도 양축가들은 배합사료에 고통을 느끼지 않고 있다. 어느 양계장을 가나 사료 쎄일즈맨의 방문이 빈번하여 바쁜 양계업자가 비명을 올릴 정도이고 어느 양계장을 가나 하나이상의 사료회사 P.R용의 방역상출입금지라는 인쇄물이 여기저기 붙어있곤 한다. 그러나 이들이 사료의 구매를 요청하는 자리에서 금년도 11월쯤 사료가격이 30%이상 오를 예정인데 파동도 예상되니 공신력 있는 자사제품을 이용하여 주면 그때가서 최대의 편의를 봐주겠다고 애원반 겁반(?)으로 사정하고 다닌다고 그 진위를 질문하는 축산인들을 많이 만나 볼수 있었다. 이럴때 필자는 물론 명확한 답변을 할 수는 없었으나—몇달 뒤의 사료사정이 어떨것이다 하는것은 그대로 복합요인이 복잡하므로—다

사료 가격 폭등의 원인은?

김 정 인

음과 같이 답변하곤 했다.

첫째, 배합사료가격의 조정(인상)은 불가피해 보이고 시기는 년말이나
년초가 되지 않을까 본다.

둘째로, 30%정도의 배합사료가격 대폭인상은 현재로서는 가능하지 않
을 것으로 보인다.

셋째로, 배합사료가격이 인상되더라도 품질면에서 상승되도록 정책적으
로 유도함으로서 그 충격은 상당히 흡수될 수 있을 것이다.

넷째로, 2~3년간은 신규사료공장 신설 및 기존공장의 증설로 수요량보
다 공급능력이 상회하고 있고, 생산능력이나 효율이 계속 향상되고 있으
므로 사료공장간의 판매경쟁은 계속 치열할 것으로 보이므로 많은 인상요
인을 사료공장 자체에서 흡수할 것이다.

현재 국제원료사료시장의 추세를 간단하게 살펴보면, 주원료인 옥수수
와 대두, 대두박가격이 현재의 배합사료가격을 결정했던 시기보다 폭등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옥수수의 경우 미국에서는 사상유례없는 풍작
임에도 불구하고 가격은 현재 배합사료공장에서 구입하고 있는 톤당 135弗
선보다 훨씬 높게 형성되어 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톤당 180弗선(도착가격)까지 치솟았던 옥수수는
사상유례없는 풍작으로 최근 들어 154弗(도착가격)선까지 하락하고 있고
대두박의 경우 수확량이 전년대비 무려 15.5%나 증가하고 있어 톤당 310
Fr까지 치솟았던 대두박도 270Fr선으로 하락하고 있고 이 하락세는 당분
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한다. (표1 참조)

국제곡물가격은 항상 미국의 작황과 소련, 중공등의 대규모 수입국의 국
내작황에 따라 좌우되기는 하겠지만 관계자의 이야기를 종합하여보면 옥
수수의 수입가격은 유류파동으로 인한 국제선임판계까지 겹쳐 현재의 안
정기준가격인 135Fr선의 유지는 거의 불가능하고 최소 160Fr선 이상이 되
지 않을까 하는 점이다. 사료가격안정기금은 현재 약 200억이 조성되어 있
으나 현재까지 배합사료공장에게 국산옥수수 보상으로 약 32억, 수입옥수
수 보상으로 50억원 정도가 인출되었고, 사료공장 균대화자금지원, 옥수
수의 계속도입등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하는바 도입옥수수의 안정기준가격

이 어느선에서 결정될것인가가 중요한 문제라고 하겠고 필자 나름대로의 소견으로는 대략 톤당 160弗선이상이 되지 않을까한다.

대두박가격은 현재 국산대두박가격이 약 140원(공장도 kg당가격, 부가세포함)인데 비하여 하락된 국제 대두박 가격은 약 155원선으로 배합사료 가격의 큰 인상요인으로 계속 작용하고 있다. 대두박은 현재 국산과 외산의 평균가격으로 사료공장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앞으로 수입대두박의 신

표 1. 미농무성 곡물 작황발표(1979. 8. 10)

1) 발표내용

구 분	수 확 예상면적	예상면적 수 확량	에 이 카 당 bushel	생 산 량	78 / 79	비 고
				(1000 bushel)	(1000 bushel)	
옥 수 수	69,626천 에이카	102.1	붓셀	7,108,938	7,081,849	0.4%증가
대 두	70,349	"	30.3	2,129,254	1,842,647	15.5 "
원 맥	62,227	"	34.3	2,133,041	1,798,712	18.6 "

2) 비교

구 분	78수확면적	79. 1 발표 식부계획	79. 4. 16 발표 식부계획	78. 8. 10 발표	비 고
				수확예상면적	
대 두	64,044천 에이카	66,300	68,801	70,349	
옥 수 수	79,719	"	80,600	79,209	69,626

규모입이 금년말까지는 억제될 것이므로 국산대두박의 사용비율이 높아지는 많이 완화될 수 있을 것이다.

배합사료공장입장에서는 주원료인상이외에 동력비 포장비 인산칼슘등 전기소모량이나 유류소모량이 큰 원료가격, 유류가격인상으로 인한 운송 운임의 상승등 제요인을 감안하여 앞에 말씀드린 주원료 예상가격의 상승폭을 감안하여 볼때 평균 약 11~15%정도의 인상요인이 있다고 볼 수 있겠다.

특히 곡류및 박류의 수요가 많은 양계사료는 보다 높을수 밖에 없을 것이다. (육계, 육추사료등)

그러나 의제공제가 가능하도록 행정적인 지원이 가해진다는 전제하에서 소맥이나 사료용보리 타피오카및 현재 사용되고 있는 수수등의 국제가격을 항상 예의 주시하여 유리한 품목을 선정 수입함으로서 배합사료의 경제성을 높히고 어분동의 원료도 국내생산 사정을 감안하여 수입이 필요할 경우 적기도입하여 국내 배합사료및 원료사료업계를 보호하고 가격을 안정화시키며 채종박, 야자박, 알파파등의 계속 혹은 신규수입을 모색하므로

서 가격인상폭을 줄일수 있을것으로 생각된다. 일본, 대만과 유럽등지에서는 오래전부터 수입원료를 다변화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수수같은 곡류를 사료공장과 양축가가 기피하고 있는것은 한심한 일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수수등의 사용은 과거와 같이 가끔 수입되어 양축가에게 혼선을 야기시켜 왔는바 앞으로는 가격이 유리하다는 전제하에서 년중사용이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또한 필자가 1978년 10월호 월간 양계에 발표한바 있는 사료의 공정규격과 품질향상에서 페력한바 있듯이, 배합사료의 공정규격은 탄력적이고 국민경제적인면에서 조정실시되어야 함을 말하고 싶다.

필자의 개인소견으로는 옥수수등 곡물의 가격이 높을때는 저에너지나 중에너지 사료가 바람직하고 옥수수가 반대로 저렴할 경우에는 고에너지사료가 유리하다고 본다. 현재의 사료공정규격은 옥수수가격이 아주 저렴했을때 조정된 것으로 옥수수의 폭등지에는 비경제적인 규격이 없나를 검토하여야 할 것이라고 본다. 최소한도 일본수준보다 높을 필요는 없지 않을까본다.

또한 배합사료의 성분검사시 성분분석 오차등이 너무 좁아서 대부분의 사료공장들이 보증성분보다 0.3%이상의 단백질 자원을 낭비하고 있는바 이의 현실적 조정이 된다면 배합사료 톤당 1,000원정도의 절감이 가능할것으로 보여진다.

배합사료의 가격자유화—여러번 논의가 되었던 문제인바 국내의 원료재고가 풍부하고 사료공장의 생산능력이 수요보다 위일경우 과감하게 자유화를 시도해줄 수 없을까 정부당국에 전의하고 싶다.

가격도 중요하지만 배합사료의 품질에 대하여 대부분의 양축가가 더욱 관심이 많다. 관심이 많은것은 그문제가 돈을 버는데 중요하기 때문인 것은 자명한 사실이 아닐까?

결론적으로 배합사료의 가격이 인상될 것은 불가피할 것으로 본다. 그 시기는 년말이나 년초가 될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것은 배합사료를 먹어서 양축이 성공할 수 있느냐 (돈을 벌수 있느냐)하는 것이다.

양축가가 원하는 품질의 배합사료가 각 사료공장에서 연구개발된 기술의 총화로 공급되어질때 한국축산의 앞날이 어두운 것만은 아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유류파동으로 인한 불황에 직면해있고 모든 국민들이 허리띠를 조이고 있다. 우리들만 살려고 해서도 안될 심각한 시기가 온것이다. 이럴때 일수록 양질의 배합사료구입 중간마진의 배제, 사료의 허실방지 축산기술의 연마등이 에너지 절약시대에 사는 양축인들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에너지(사업자금) 절약이 아닐까 한다.